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 연구

구은자¹, 김종현^{2*}

¹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²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Analysis of Necessity of The Law for Musical Industry Promotion

Eun-Ja Koo¹, Jong-Heon Kim^{2*}

¹Division of Performing Arts Planning &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²Division of Culture & Arts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약 지난 20여 년간 뮤지컬은 한국 공연시장의 비약적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성장의 정체기를 맞이했고, 뮤지컬산업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독립장르의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22년 개정된 공연법에서 '뮤지컬'이 독립장르로 명시된 것은 뮤지컬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뮤지컬이 국내를 기반으로 한 공연시장에서 세계를 무대로 한 K-뮤지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뮤지컬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투자가 필수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법적·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뮤지컬은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크고, 현재의 정책과 지원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뮤지컬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첫째 전담부서의 설치와 둘째,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설립, 셋째 인재양성과 뮤지컬의 창제작을 위한 창작거점조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Abstract For the past 20 years, musicals have driven the Korean music industry to rapid growth, but starting from the mid-2010s, the industry has faced a stagnant period. As a solution, the Musical industry has been classified into various categories to raise long-term and systematic support. Thus, with the revision of the Performance Act in 2022, the 'musical' was specified as an independent genre, which led to additional institutional support. This study examines the tasks that must be addressed for the domestic-based Korean musical or "K-Musical" market to leap onto the world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Korea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tentatively named) and propose its direction. This research was done using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internet survey methods. The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though the industry has great growth potential, the current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are limite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departments, public institutions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finally the creation of a creative base for musicals is proposed.

Keywords : Musical, Industry, Promotion, Growth, Law

*Corresponding Author : Jong-Heon Kim(Sungshin Women's Univ.)

email: songpluggger@sungshin.ac.kr

Received September 26, 2022

Revised November 2,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1. 서론

2022년 1월 공연법개정으로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이 독립장르로 명시되었다. 법령에서 독립장르의 인정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뮤지컬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매년 평균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공연 시장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1]. 2000년 150억 정도로 추정되던 시장규모는 2010년대에는 3,000억 대, 2022년에는 4천억대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시장규모로만 본다면 미국과 영국, 일본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규모다. 짧은 기간 뮤지컬 전문제작사(232개, 2014년 기준, 2015뮤지컬실태조사)의 증가와 전용 극장(22년 현재 27개, 한국뮤지컬협회)의 등장과 확대 등 창작환경 역시 급변하였다. 초기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일변도에서 창작 뮤지컬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해외수출과 공동제작, 제작자로서 브로드웨이진출(오디 신춘수대표), CJ ENM의 브로드웨이 투자참여 등 국제교류와 협력의 깊이와 강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3].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는 K-팝에 이어 영화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뮤지컬의 해외수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언론에서는 드라마와 가요, 그리고 영화한류를 이을 다음 주자로 뮤지컬을 주목하고 있다[4].

뮤지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은 결국 정책의 대상으로서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뮤지컬은 2010년대 중반 시장규모가 산업단위로 분류될 만큼의 수준에 도달한 이후 정체를 맞았다. 영화나 드라마, 가요가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해외 시장에 진출한 것과 달리 아직 창작 뮤지컬은 내수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3]. 뮤지컬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형성과 산업육성 촉진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유다. 민간과 시장 위주로만 진행되는 성장은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하나의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경제성장률, 고용률, 해외수출 등)이 큰 경우 정부의 산업 진흥 지원이 가능하다[5]. 뮤지컬은 문화산업의 제 분야 중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공연산업은 영상이나 출판 등 타 문화산업 분야와 달리 산업적인 측면보다 예술적 측면에서 더 강조되어 왔다. 뮤지컬은 비약

적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공연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으나 그동안 연극의 하위장르로 분류됨에 따라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해 한시적인 지원정책만을 받아오며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뮤지컬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뮤지컬의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과 운영, 뮤지컬 산업 발전 자금 및 재원의 조성, 창작 인력 보호와 육성, 창작거점 및 제작 시스템구축, 관객개발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1,3,6-8].

뮤지컬이 타문화산업에 활용되는 OSMU(One-Source Multi-use)의 효과와 대체 불가능한 공연양식인면서 동시에 음원복제 및 2차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대량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디지로그(Digilog) 산업 유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정책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갖추어졌고, 1974년부터 제한적이지만 영화와 출판(영화진흥법의 ‘진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시점을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진흥정책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9]. 이후 게임산업진흥법(2006), 콘텐츠산업진흥법(2010),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2015),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19), 문학진흥법(2020) 등이 제정되었다. 현재 미술진흥법과 국악진흥법은 제정 또는 개정이 추진 중이다.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부분 개정에 따라 뮤지컬이 독립장르로 표기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리면서 뮤지컬산업진흥과 관련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뮤지컬이 국내를 기반으로 한 공연시장에서 세계를 무대로 한 K-뮤지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시도된 것이다. 한국 뮤지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뮤지컬 시장의 제도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투자가 필수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법적·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진흥법에서 다뤄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으로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의 개념 및 정의

표준국어대사전[10]에 따르면 뮤지컬은 미국에서 발달한 현대 음악극의 한 형식으로 음악·노래·무용을 결합한 것으로, 뮤지컬 코미디나 뮤지컬 플레이를 종합하고, 그 위에 레뷰(revue)·쇼(show)·스펙터클(spectacle) 따위의 요소를 가미하여, 큰 무대에서 상연하는 종합 무대 예술이다. 영국 브리태니커 사전[11]에서 뮤지컬은 ‘뮤지컬 코미디라고도 불리는 뮤지컬은 음악, 춤, 대사가 제공되는, 단순하지만 독특한 플롯을 가진, 본질적으로 감상적이고 재미있는 극적 제작물’이다. 기본적으로 뮤지컬을 정의하는 데 있어 국내외 두 사전에서는 예술의 세 가지 요소인 극본(플롯을 가진 대사와 가사), 음악(노래와 기악곡), 춤을 공통 요소로 언급하면서 ‘극적 제작물 theatrical production’, 혹은 ‘종합무대예술’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뮤지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초안 [공청회 자료]에서 핵심이 되는 제2조 (정의)는 숙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12].

2.2 뮤지컬의 산업적 특성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뮤지컬이 지니는 산업화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뮤지컬은 ‘공연예술’이라는 미학적 개념과 ‘문화상품’이라는 상업적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화예술 장르이기 때문이다[13]. 뮤지컬 실연(實演)에 있어서의 특징은 일반적인 공연예술과 대동소이하다.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며,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이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특성, 즉 뮤지컬의 “비(非)복제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안에서 복제 가능한 요소를 추출해 낼 수 있다면 뮤지컬의 특장점인 산업화 속성은 극대화된다[13].

오랜 기간 뮤지컬의 비복제성은 콘텐츠 수익모델 관점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배우들의 실연을 바탕으로 한다는 장르적 특성상 콘텐츠의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는 온라인 공연으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갓 뜯 심심한 회를 통조림에 넣어 전하는 느낌”[14]으로는 뮤지컬 공연이 갖는 감동과 가치를 오롯하게 담아내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생산의 측면이 아닌, 유통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비복제성은 대체불가성과 양면을 이룬다. 대량생산이 어려

운 만큼 무형유산의 오리지널리티가 보존될 수 있어서 다른 장르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유통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제가 불가능한 뮤지컬 콘텐츠의 한계점을 대체가 불가능한 뮤지컬만의 경쟁력으로 치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구체적인 미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뮤지컬에는 여타 공연 예술이 갖고 있지 않은 복제 가능 요소가 있다. 바로 뮤지컬에서 사용되는 뮤지컬 넘버다.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해외 시장으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브타이틀이 갖는 한계는 상당하다. 1인칭 장벽이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며, 원문의 의미와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발한 표현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초월번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추세다. 그런데 뮤지컬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만국의 언어인 음악으로 극을 전개해 나간다. 이것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에 큰 강점이 될 수 있으며, 뮤지컬 산업화의 전망을 낙관하게 하는 요소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뮤지컬에서 파생되는 2차 저작물의 공유성을 높여서 뮤지컬의 산업화 및 수익 모델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15].

이상에서 뮤지컬은 복제를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공연양식이면서 동시에 음원복제 및 2차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대량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디지로그(Digilog) 산업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변혁의 구체적 동인(動因)이 시의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발전잠재성은 본격적인 추진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의 제정은 현 뮤지컬 시장을 변혁할 수 있는 핵심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기에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3. 한국 뮤지컬산업 현황

뮤지컬은 2000년 약150억 시장규모에서 2018년 약 3,500억 원대의 시장규모로 성장했고, 22년 다시 4200억~4500억 원대를 예상하면서 23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시장규모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뮤지컬 전체 매출액의 67%를 차지하던 라이선스 뮤지컬의 비중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이후 50% 이하로 감소된 반면, 창작뮤지컬의 비중은 26%에서 36% 수준으로 증가하였다[16].

Table 1. Musical Market Size

Spec.	Sales on Interpark	Market estimates
~2000	14	14
2006	50	110
2008	1,00	150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14	190	280
*period of stagnation		
2016	200	280
2018	230	350
2020	76	140
2021	160	230
2022	400	420
*expected estimate	(230, July)	(230, July)

*1 billion ₩

**KOPIS Integrated Computer Network, Interpark's 'Musical' genre ticket sales

Table 2. Current Status of Sales Size by Musical Type

Spec.	(unit:thousand won)		
	Creative musical	License	Foreign Musical Performances in Korea
2016	45,501,000 (26%)	116,683,000 (67%)	11,059,000 (7%)
2017	60,883,000 (36%)	73,186,000 (44%)	34,077,000 (20%)
2018	73,810,000 (34%)	108,738,000 (50%)	36,966,000 (16%)
2019	65,779,000 (37%)	85,250,000 (48%)	28,194,000 (16%)
2020	26,760,000 (36%)	35,762,000 (48%)	12,290,000 (16%)

*KOPIS Integrated Computer Network, Interpark's 'Musical' genre ticket sales

한국뮤지컬의 해외진출은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당시는 문화교류 차원이었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은 2010년 이후로 본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뮤지컬은 지역적으로 중국과 일본,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권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3. The number of countries and works of creative musicals played overseas (1987~2022년)

Spec.	Tour	License	Local Co-production	Subtotal
Japan	54	26	0	80
China	28	41	7	76
Taiwan	8	2	0	10

Thailand	2	0	0	2
Singapore	3	0	0	3
India	1	0	0	1
Hongkong	1	0	0	1
Indonesia	1	0	0	1
USA	8	2	13	23
England	4	0	1	5
Canada	1	0	0	1
Hungary	0	1	0	1
Spain	1	0	0	1
Sweden	1	0	0	1
Italy	1	0	0	1
Slovakia	0	1	0	1
Poland	1	0	0	1
Total	115	73	21	209

*Shin Chun-soo,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musical market and Tasks for Development, public hearing materials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공연시장 동향분석 보고[17]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공연시장이 회복세를 넘어 본격 성장세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다. 통합전산망(KOPIS) 추정치 기준, '19년 상반기 티켓판매액을 약 1,917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21년 상반기는 약 1,171억 원으로 아직 '19년에 못미치는 수준이나, '22년 상반기는 약 2,316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년 상반기에는 총 5,663건의 공연으로 약 535만장의 티켓예매와 약 2,316억 원의 티켓판매가 이루어졌다. 상반기 뮤지컬 공연은 총 1,183건, 티켓판매수는 약 312만 건, 티켓판매액은 약 1,826억 원으로 전체 공연시장에서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연건수 기준 약 21%, 티켓판매수 기준 약 58%, 티켓판매액 기준 약 79%이다.

Table 4. Performance and musical performance in the first half of 2022

Spec.	Number of Performance (%)	Number of Ticket Sales (%)	Ticket Sales (%)
Total Performance Industry	5,663 (100%)	5,351,313 (100%)	₩231,564,300,368 (100%)
Musical	1,183 (21%)	3,123,535 (58%)	₩182,604,195,899 (79%)

*Report on the trend of the performance market in the first half of 2022,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한국 뮤지컬 시장은 3,500억원 규모의 박스권에 갇힌채 긴 시간 정체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 따른 공연예술계 전체의 위기와는 분명 결이 다른 것으로 이례적인 현상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뮤지컬 시장의 정체기를 분석하는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지금의 규모를 한국 뮤지컬 성장의 한계치로 보는 것이다. 즉 3,500억원 규모의 박스권 형성을 정체 현상으로 보지 않고 뮤지컬 시장의 안정세로 보는 것이며, 더 이상의 도약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이 현상을 시장의 팽창 속도와 국가의 법적·제도적 변화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것이다[18]. 뮤지컬에 대한 최대지원액이 연간 68억 4천 만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공연예술 제분야와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19]이 이러한 시각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본고는 두 번 째 분석에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뮤지컬의 발전 가능성은 아직도 상당하며,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 영화산업과 드라마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도 국가 주도의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뮤지컬에 대한 국가적 지원사업은 그동안 신진 창작자들에게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초기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공공지원의 경우 단기적으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작품의 제작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한국 뮤지컬의 양적 팽창에는 기여한 바가 상당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리딩 쇼케이스 단계에 머무는 작품을 다수 양산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20]. 한국의 뮤지컬 산업이 박스권을 돌파하며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예술가에게 일시적 지원과 후원을 해주던 이전의 공연예술 정책을 극복해야 한다. 보다 과감하고 장기적인 산업적 육성책을 시행할 때만이 국내 뮤지컬 시장의 정체기를 넘어설 수 있다.

4. 뮤지컬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4.1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4.1.1 관련법의 개정

2022년 1월 18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7월 19일 시행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독립적인 한 분야로 정의함으로써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연법[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공연법의 정의에 “뮤지컬”이 독자적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뮤지컬산업의 기반환경 조성 및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21].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에 ‘뮤지컬’이 명기되어 국회법안소위(2022.8.25.)를 통과하였다. 이어 8월에는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독립된 장르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뮤지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타당성과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공연예술 시장에서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보면 뮤지컬의 장르적·산업적 독립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적 위상의 재정립은 새삼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비로소 한국 뮤지컬이 법령상으로도 독립 장르로 인정되었다는 점은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에 대한 논의에 시의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4.1.2 지원정책 현황 및 한계

특정 장르나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뮤지컬과 관련된 법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공연예술이 미치는 사회에 대한 영향이 공연예술 분야와 그 주변의 관련된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타당성을 갖는다[22].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해도 뮤지컬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공연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는 성공 가능성을 미리 알기 힘든 분야다. 우리나라 뮤지컬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창작이 지체되고 해외 대작들을 중심으로 한 이미 인정된 작품과 일부 스타급인력에 자본과 소비가 몰리고 있는 것은 이미 목도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인력 형성과 공연예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미 과거에 쓴 노동력을 활용하여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외국 애니메이션 제작의 일부 공정을 담당하다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창작 및 기획인력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분야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시장에 의한 뮤지컬 창작예술인력과 시장의 형성은 치명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Table 5. Comparison of Musical Laws

Spec.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Method of Performanc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Enactment	Established in 1972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the amendment on August 25, 2022	1999 enactment	1961 Enacted Revised	2002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 2010 Revised by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Purpose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Creating a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Regulations on matters for the guarantee of artistic freedom and the promotion of sound performance activities *Na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disaster countermeasures, etc	A bill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content industry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 Priority application to the Basic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priority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Act when protecting copyrights
Support Policy	The Arts Promotion Fund Seoul Arts Center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 Association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support for facility creation, support for taxation in the cultural industry, support for investment production companies, etc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performing arts, etc Fostering/supporting performing artists Training and arrangement of support history for performing arts Expansion of performance facilities Overseas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Safety management of concert halls, etc Integrated Performing Arts Network the cultivation of stage arts professionals	Develop mid- to long-term plans for the promotion of the content industry (3 years) Creating a Content Industry Foundation Promotion Policy by Content Industry Sector Standardize content and create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Protection of user rights Content policies based on progress in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Securing and dis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motion of the content industry institutional improvement Convergence, start-up revita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standardization, overseas expansion, tax support, financial support
Dedicated organization	Korean Culture and Arts Council	2009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established	Arts Management Support Center in 2006) Article 4 Designation of a grid operator	Content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of the State)
Fund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abolished in 2004)			Content Mutual Aid Association (2013) * Approv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oan of funds, guarantees, etc Basic Material: Members' contributions and deductions Deposits or contributions

*Lee Jong-kyu(2022). Reference to the Debate Collection

지원정책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제작과 관련된 사업과 유통관련사업, 콘텐츠발굴사업으로 기관별로 분리되어 단기성 예비육성사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뮤지컬장르 별도의 지원사업 외에는 예술위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들이며, 콘진원의 경우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콘텐츠 발굴 위주 사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4.2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의 방향성

4.2.1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고 그 이듬해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영화의 중장기 계획수

립과 각종 진흥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산업 중 최초의 산업진흥법이고 그 역사도 오래다. 영화산업이 최근 한류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 단기간에 그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영화진흥법은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면서 이후 게임산업진흥법(2006), 콘텐츠산업진흥법(2010), 에미메이션산업진흥법(20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0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9), 출판문화산업진흥법(2019), 문학진흥법(2020)등 각 문화분야에서 진흥법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책은 창작 및 유통지원 같은 ‘소프트 웨어’ 성격의 사업보다, 기반조성 및 시설 건축 같은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고, 예산 투

Table 6. Current status of musical support projects by sector

(Criteria : 09.2022)

Spec.	Business name	Organizing and supervising agencies	Details of the project
Human Resource Promotion	Korean Academy of Arts and Creativity	Korean Culture and Arts Council	Training and workshop courses for creators (by field) *Included in play
	K-Musical Academy *2014~201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Musical Association	Training courses in planning and management for field workers and entry personnel
	DIMF Musical Academy	Korea Culture and Arts Council,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Education for local creators and performers: a workshop course
	Content Creativity Partnership Project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Creator training
	Strengthening the producer's capabilities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Enhancing capabilities for overseas distribution
Distribution support	K-Musical International Market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howcase Support
	K-Musical Road Show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howcase Support
	K-Global Musica Platform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upport Showcase/ Reading/ Tryout
Traditional Singing Production	Performing Arts Creation Room (Musical)	Korean Culture and Arts Council	Support for pre-production activities / New work of the year / Long-term creation support for medium and long-term
	International exchange (theatrical and musical)	Korean Culture and Arts Council	Artist Overseas Residence/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Korean Art/ Support for Inter-Korean Culture and Arts Exchange/ Support for the spread of Arco International Ar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operation business for Traditional Korea Singing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upport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ctivation for Traditional Korea Singing
	Fostering Upcoming Story Writers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Glocal Musical Live

입에서 성과 실현까지는 대체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9].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 필요성 대두와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현상은 문화콘텐츠를 문화정책의 주요 분야로 올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음을 증명할 시대는 지났다.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 못지않게 문화콘텐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갖춘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고[23,24],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25,26], 콘텐츠 분야 크라우드펀딩 제도화[9]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결과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뮤지컬산업진흥법안 준비를 위해서는 유사법령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뮤지컬처럼 애니메이션 분야도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법안이 추진된지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영화진흥법은 영비법으로 통합 제정된 이후 18번 개정되었다. 앞서 진행된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역시 앞으로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새로운 플랫폼 대상), 체계적 제작지원, 발전기금조성방

안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27].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진흥법은 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관련된 조사연구와 유통 등 관련업무를 위한 조직을 설립한다. 뮤지컬산업진흥을 위해서 앞서 진행된 사례와 더불어 '뮤지컬'의 개념 및 정의에서 다루었던 진흥의 대상이 되는 '뮤지컬'의 정의와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속의가 필요하다.

4.2.2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방향

2022년 2월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에서는 “한국뮤지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12]을 통해 공연법 개정에 즈음하여 한국 뮤지컬 분야의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뮤지컬협회의 제언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뮤지컬산

Table 7. Comparison of Similar Promotion Act

Spec.	Film and Video Promotion Act	Ani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Propel	1999 Amendment of the Film Promotion Act (Film Promotion Committee) Amendment of the Public Security Act (Film Development Fund) Integrated Computer Network Law Society of Movie Theater Film Development Fund Expands Financial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Mid- to long-term plan to foster the animation industry ('15~'19) implement • 2019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nimation Industry (21.06)
Propose	Promote the quality of movies and videos and promote the promotion of the video culture and video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animation industry • Creating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animation industry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Support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film promotion plan and creation of a fair environment the Film Council Film Development Fund Management and Manage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related to video production Research,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promotion of Korean films and the promotion of the film industry → Korean Film Academy Support for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fil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for animation promotion - Support for revitalization of the animation industry -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 Expansion of animation industry infrastructure, etc. - Preparation of industry-related statistics, etc Establishment of the Animation Promotion Committee
Dedicated organization	the Film Council	Animation Promotion Committee
Fund	Film Development Fund : 3% admission fee +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treasury	

*Lee Jong-kyu, Excerpt from discussion data

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뮤지컬 관련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 문화예술정책실 내 예술정책관의 소속부서인 공연전통예술과에서는 부서의 주요 업무를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뮤지컬’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연극’ 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서

담당관의 업무 분장 내용을 살펴보면 총 15명의 인원 중에서 2명이 뮤지컬 담당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역시 ‘연극, 뮤지컬 진흥’, ‘국립극장, 국립극단, 국립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관련 업무’, ‘공연장 안전 관리’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뮤지컬 고유의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연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 내에 뮤지컬 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뮤지컬 장르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한국 뮤지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제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산하에 뮤지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영화 장르에서는 이미 1973년에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KOFIC, 구. 영화진흥공사)가 설립되어 2021년 3분기 기준 139명의 직원을 두고 영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0여년의 장기적 지원이 자양분이 되었기에 최근 한국의 영화들이 세계적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뮤지컬은 이미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산업화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다각적 발전 노력이 국내시장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면, 이제 뮤지컬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이 요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을 통해 뮤지컬산업진흥원(가칭)이 설립된다면, 뮤지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자료를 발간하며, 예비창작자 및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본 기관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한다면 창작지원부터 해외수출까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해진다.

셋째, 창작의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재 양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영화의 경우, 1984년 영화진흥위원회 산하에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세워졌다. 이 국립 영화 학교는 한국의 영화 사관학교로 불리며, 허진호, 임상수, 봉준호 등 지금까지 700여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술전문과정, 2021년에는 사전제작과정을 신설해 프리프로덕션부터 포스트프로덕션까지 영화 제작 전 분야의 인재를 배출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을 통해 국립뮤지컬센터(가칭)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신·구 창작자가 교류할 수 있으며, 뮤지컬 산업에 종사할 예비인력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하나의 산업이 발전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속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에 만족해야만 한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컬 배우·스태프 등 전문인력 신규양성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신·구 뮤지컬산업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 내에 공연예술과(뮤지컬)가 독립적으로 조직되고, 뮤지컬산업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과 국립뮤지컬센터 같은 교육양성 기관이 양 축을 이루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정체기에 들어선 한국 뮤지컬 산업의 재도약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5. 결론

공연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뮤지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뮤지컬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은 뮤지컬산업진흥법의 제정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뮤지컬산업진흥법과 관련된 뜨거운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뮤지컬 장르에 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문헌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해 뮤지컬의 고유 특성과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뮤지컬 산업 규모의 변동을 시기별로 소개하여 그 성장 과정에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시도들에 대해 약술하였다.

뮤지컬 산업의 발전사와 현황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뮤지컬 시장의 정체현상은 시장의 팽창과 국가의 법·제도간의 속도 차에서 기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장의 변화에 걸맞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으로 한국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책의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고, 법 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안정적 재정 지원, 계획적 실무시스템, 지속적 인력 양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뮤지컬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꾸준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들이며 뮤지컬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최근 이루어진 공연법의 개정은 ‘뮤지컬’의 이론적 독

립을 공식화하였다. 이것이 선연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뮤지컬의 독립적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가 뮤지컬 시장의 정체현상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H. Kim, *A Study o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nalysis and the Evaluation Model for Korean Original Musical Commercialization Strategy*, Ph.D dissertation, Sangmyoung Univesity, Seoul, Korea, pp.11-23, 2018.
- [2] C. S. Shin,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Musical Market 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Public Hearing Presentations for Enactment of the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 Korea Musical Theatre Association, Seoul, Korea, p3, August 2022.
- [3] B. S. Park, "K-Musical Hallyu, Prospects and Tasks", *Korean Art Research*, No. 34, pp5-28, 2021. DOI: <http://dx.doi.org/10.20976/kjas.2021..34.001>
- [4] S. M. Jeon, "[K-Musical] Korean Musical Who is making a leap toward new Hallyu content", *Aju Economy*, 2022 July 22, Available From: <https://www.ajunews.com/view/20220622153319003>
- [5] M. R. Kim,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nacting the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 Public Hearing Discussion Paper, Korea Musical Theatre Association, Seoul, Korea, August 2022.
- [6] E. J. Lee,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Creative Musical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7] J. H. Kim,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Korean Musical Industr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Musical Cultural Contents and Support for Creative Condition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2012.
- [8] H. I. Kwon, S. G. Jung, N. R. Ha, H. S. Kim, H. R.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ecosystem Fostering: Focused on the Musical",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Vol.16, No.1, pp201-224, 2015. DOI: <http://dx.doi.org/10.15706/jksms.2015.16.1.009>
- [9] K. C. Kim, "Th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 industry promotion policy", *Journalism Information Research*, Vol50, No.1, p.276, 2013. DOI: <http://dx.doi.org/10.22174/jicr.2013.50.1.276>
- [10] Standard Korean Dictionary,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8051fcd21a459698a997e2454a2065> (accessed Sep. 20, 2022)
- [11] British Dictionary of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art/musical> (accessed Sep. 20, 2022)
- [12] H. K. Ko, "Why is the Musical Promotion Act necessary - Focusing on the definition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musicals",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 Public Hearing Discussion Paper, Korea Musical Theatre Association, Seoul, Korea, p3, August 2022.
- [13] J. K. Lee, "Direction of enactment of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comparison of similar cases", Public Hearing Presentations for Enactment of the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 Korea Musical Theatre Association, Seoul, Korea, August 2022.
- [14] K. R. Kang, "Although acting for more than 50 years, this is my first time acting as an actor", Kugminilbo, 2022 October 26, Available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1745&code=13120000&cp=nv>
- [15] S. Y. Kim, 2016 Korea Culture Informatization White Paper, Korean Cultural Information Service Agency, Korea, pp.143-230.
- [16]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021 Survey on the performing ar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 [17] E. K. Kang, Report on the trend of the performance market in the first half of 2022,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Center, Korea, 2022.
- [18] B. S. Park, "To what extent can korean musical market grow?", The Musical, Vol.178, 2018 July 18. Available From: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3789>
- [19] J. W. Won, "The need for public support to the growth engine of the musical industry", Musical Industry Promotion Act Public Hearing Discussion Paper, Korea Musical Theatre Association, Seoul, Korea, August 2022.
- [20] H. W. Chie,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Shift in Nurturing New Musical Theatre Writing", *Journal of Culture Industry*, Vol.18, No.2, pp.39-40, 2018. DOI: <http://dx.doi.org/10.35174/JKCI.2018.06.18.2.39>
- [21] H. W. Chie, "Proposal for the musical ecosystem as a global cultural industry", *K-Musical Forum*, Korea Musical Theatre Association, Korea, 21p, November 2021.
- [22] J. W. Hwang, The structure and policy support of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 Focusing on plays and musicals, Basic research report, Korea Labor Institute, Korea, pp15-17, 2008.
- [23] Y. S. Choi,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id- to long-term policy plan for fostering cultural content manpower, Korea Culture and Content Agency, Korea, 2008.
- [24] H. D. Nam,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and Copyright: Pharmaceutical Sales and Power History", *Cultural Policy Discussion*, Vol 18, pp47-68, 2006.
- [25] S. G. Gye, "A Study on the Right to cinematize of the other's copyrighted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Law Research*, Vol. 47, No. 2, pp107-130, 2007.
- [26] S. C. Jeong, Study on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Reducing Content Illegal Copy on the National Economy, Korea Institute of Culture and Tourism, Korea, pp77-80, 2011.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972>
- [27] E. J. Park, Representative of th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ni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Break news, 2021 August 12. Available From: <https://www.breaknews.com/826657>

구 은 자(Eun-Ja Koo)

[중신회원]



- 200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공연 예술협동과정 (공연예술학석사)
- 2016년 8월 : 경희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예술경영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예술경영, 공연예술, 뮤지컬, 관객개발

김 종 헌(Jong-Heo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공연전공 (언론학석사)
- 2018년 8월 : 상명대학교 공연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공연기획, 뮤지컬, 극장경영